

강준민 목사  
LA 새생명비전교회

# "뿌리깊은 영성편지"



## 다시 초심으로!

(3)

초심은 처음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심은 순수합니다. 다시 초심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물 창고에 담긴 소중한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기념할 수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배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록이 중요한 것은 기록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억하며,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또한 기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기억의 종말》에서 가르쳐 준 기억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



떻게 기억하느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에 반응하고 기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보다 큰 존재다. 기억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기억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에 불과할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 『기억의 종말』, IVP, 45쪽)

과거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해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결혼식 날을 기념하는 부부가 그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

혼 생활과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과거의 기억은 복된 기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초심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합니다. 작은 도움만 받아도 눈물 흘립니다. 그 초심이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되고, 잘못하면 변질됩니다. 순수한 동기가 야심으로 변질됩니다. 소중히 여겼던 작은 도움들에 대한 감동이 식어집니다. 감동의 눈물은 쉽

게 마릅니다. 감동의 눈물이 사라지면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사막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어떤 땅이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듯이, 우리 마음에 눈물이 사라지면 사막이 됩니다. 초심을 가꾼다는 것은 겸손한 성품을 배양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유연합니다. 목적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규정이 많아지고 세분화됩니다. 규정이 질서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

서 규정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더 나은 규정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굳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초심은 근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시 36:9),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렘 17:13).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근원은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또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전 12:13). 근원을 소중히

여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마 6:33).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마 28:19).

초심은 존재 이유에 충실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움은 존재 이유에 충실할 때 빛납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볼 때 아름답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름답습니다. 사업가는 이윤과 함께 사람을 남겨 사회에 기여할 때 아름답습니다. 예술가는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 때 아름답습니다. 음악하는 분은 울림을 주는 연주를 할 때 아름답습니다. 목회자는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볼 때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구원할 때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길 때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또한 선교입니다.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합시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양실에서 강준민드림

## [김진홍의 아침묵상] 모세의 건강법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일하다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는 80세 나이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 사막길을 40년간 걸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라 하여 가마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걸었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나의 서재에 있는 책 중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얼마 전 영양원을 방문하였다. 충격 받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한낮에 침대에 졸졸이 누워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나는 그날부터 건강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두레마을 둘레길을 걷습니다. 둘레길 6, 7km를 걷고 나면 다리에 힘이 오르고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80세 이후 120세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건강법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의 성품입니다. 민수기서에서 모세의 성품을 다음 같이 일러 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수기 12장 3절)”.

온유하다는 말을 간결하게

정의한다면 부드러운 기질과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장수합니다. 장수하려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온유함은 건강을 누리며 행복

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품이 날카로우 화를 버려 버려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스스로 갹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유함은 훈련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설명: 동두천 두레마을 둘레길

## PRICE TO SELL

ONLY \$150,000

- AFFORDABLE 2-bedroom condo in an EXCELLENT LOCATION in Windsor Park!
- TWO BEDROOMS
- INCLUDES TWO oversized balconies - North & South -
- Excellent floor plan includes a large living room, a pass-through kitchen with an adjacent eating nook, and a large storage room.
- Assigned parking with plug-in.
- Close to chinook center, and easy access to downtown.
- Age restriction is 18+.

CELL: 403-870-8704 / B: 403-775-6950



COLDWELL BANKER



## 비즈니스 스페이스 렌트

한인 상권의 중심지인 고려플라자에서 새로운 렌트를 구합니다.

- 면 적 : 1) 856 sqft, 2) 1,050 sqft
- 업 종 : 한의원, 학원, 클리닉, 치과, 사무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 문 의 : 최순일 부동산, (403) 479-1472

